

캄보디아 - 외자유치 주력으로 봉제 거점 가능성 보여

캄보디아는 적극적으로 외자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하였던 폴포트 학살과 내전을 겪고 난 후부터 정부는 열린시장 경제를 추진하면서 ‘경제특구(經濟特區 : SEZ)’를 신설하는 등 외국기업의 직접투자를 경제개발의 원동력으로 정하고 있다. 과연 캄보디아는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는 일본 아세안센터의 ‘투자환경시찰 미션(投資環境視察 mission)’ 멤버들 앞에서 “민간투자자가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싶다”고 하며, 일본기업이 투자해 주기를 호소하였다.

현재 외국기업의 직접투자가 경제개발에 있어서 주요 원동력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2005년에 ‘캄보디아 개발평의회(開發評議會 ; CSEZB)’를 설치하였다. 투자 프로젝트의 등록부터 수출입허가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를 제공하여 번잡한 법수속을 간략하게 만들었다.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 교외에 있는 프놈펜 국제공항으로부터 8km 떨어진 곳에 일본의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파’가 직접 추진하고 있는 프놈펜 경제 특구가 있다. 부지 면적은 360 헥타르(hectare)의 광대한 땅에 공장용 대지 외에도 자가발전이나 상하수도, 주택지 등이 있다. 폴포트의 내전 후 훈센 총리에 의한 안정된 정세, 치안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①구미일(歐·美·日) 3대 시장에서의 일반특혜관세제도(一般特惠關稅制度 : GSP), ②후발발전도상국(後發發展途上國 : LDC)으로서 유럽 및 일본으로의 무세 무쿼터(無稅 無quota)

수출 가능, ③석유, 가스, 보크사이트(bauxite : 알루미늄의 주원료) 등 풍부한 지하자원의 가능성 등을 배경으로 2008년 1월에 경제특구에서 공장을 정식 가동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프놈펜 경제 특구는 ‘공업과 상업 및 주택이 삼위일체가 된 뉴타운을 건설하여, 10만명의 공장 노동자를 창출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의 활동에 따라 일부 일본계 기업이 캄보디아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캄보디아 봉제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큰 SPA(製造小賣業)’가 현지에서도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는 봉제공장으로서 1월 하순부터 트라이얼(trial) 생산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또한 법인세 최장 9년간 면제와 중고(中古) 생산설비의 수입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등 투자 환경을 만들어, 중국탈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의 기계메이커도 많이 시찰하러 오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많다. 캄보디아 정부는 회견에서 일본과의 투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캄보디아 국내의 법적 정비가 아직 안 되어 부정방지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총리도 “이전에 비하면 부정이 줄고 있지만 아직 머리 아픈 문제”라며, 부정 코스트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력 코스트나 주요도로, 항만의 정비문제 등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 정비도 충분치 못한 현상이다.

일본의 한 시찰자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아직 더 기다려봐야 하며, 긴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